

담양 폭염주의보...광주·전남 34도 육박

광주기상청, 오늘도 내륙 중심 31도 웃돌 듯

“온열질환 대비 수분·염분 자주 섭취 해야”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전남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광주와 전남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지역적 영향과 강한 일사 영향을 받았다. 남해안 일부 지역을 뺀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 오후 3시 기준 광주·전남지역 최고기온은 광주 광산 33.9도, 곡성 옥과·나주 33.5도, 광주·담양·함평 월야 33.4도 등이었다. 광주기상청은 담양의 습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체감온도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9일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단’ 운영

시설원에·교육·실증 분야 전문가 7명 구성

전남도는 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시설원에·교육·실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단은 시설원에 법안대표, 대학교수, 연구원 등 7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 앞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와 명동주 농업회사법인 씨너스 대표, 신창선 순천

대 교수, 내해영 목포대 교수, 김용규 전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을 대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기 정착돼 국내 스마트팜의 거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청년창업 교육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단 역할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재 설계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간척지 33ha에 총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완공 목표로 교육·생산·연구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주민생활 만족 13개월 연속 1위

전남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1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4월 조사 때보다 1.2%p 오른 74.1%의 만

17개 광역시도 조사서

4월비 1.2% ↑ 74.1%

김영록 지사 13개월 1위

족도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69.7%, 경기도가 68.6%로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전체의 평균 주민생활 만족도는 60.5%로 4월 58.9%보다 1.6%p 높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62.9%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사진)도 지난 5월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4월보다 0.8%p 오른 72.2%를 기록,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p 오른 70.3%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2위를 유지했다.

김정환 기자

“한달에 한번 쓴소리 듣겠다”

이용섭 광주시장, 각계 30명 ‘쓴소리 위원회’ 구성

민선7기 반환점을 앞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쓴소리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듣기 좋은 단소리보다 애절어린 비판을 해줄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쓴소리 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시민 30여명으로 구성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가감없이 의견을 내는 당연직과 시민공모를 통해 세대·성·계층별로 선출해 한 달에 한번 쓴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민선7기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주형일자리 자



동차 공장 착공,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한국수영진흥센터 유치, 인공

지능 광주시대 개막, 경제자유구역 지정, 코로나19에 대한 치밀한 대응으로 청정 광주 실현, 공기관 업클러스터 유치 등 나름 성과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역사적 평가와 광주발전전망 보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등구, 공동체센터 활성화 위해 무한상상실 운영

광주 등구는 주민 거점 공간인 푸른마을공동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인 BR스페이스와 ‘무한상상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후원으로 운영되는 무한상상실은 창의성·상상력·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적인 공간이다.

각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와 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등구는 이번 협약으로 △영유아 인문학 놀이터 △영상인형(텔레로프) 만들기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콘서트 △유아 팝업 북 여성강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구, 지역경제 활력화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광주 서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3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부서 검토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 채택제안 3건, 참여보상 제안 3건을 선정했다.

부서 채택제안은 ‘밭도 먹고, 응원하고! 동네에서 밥 먹으면 손소독제 드려요 캠페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안’, ‘서구 사업장 이용하기 같이 이겨내요 서구 SNS 챌린지 캠페인’이 선정됐다.

남구,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수행기관 모집

광주 남구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8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놀이 모델을 발굴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또래끼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 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들의 사업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은 놀이 시간이 부족한 6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북구, 방법기능 더한 안심택배보관함 확대

광주 북구는 주민에게 안전한 택배 수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7월 문흥동 청소년수련관과 각화중합사회복지관 2곳에 택배보관함을 설치, 지난 5월 추가 설치했다.

이번 추가된 무인방법택배보관함은 대학가 원룸촌 근처 용봉동 용흥어린이공원에 설치했으며, 상단에 부착된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통해 골목길 범죄예방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보관함 이용은 택배기사가 물품 수령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보관하면 관제센터를 통해 수령인에게 비밀번호가 발생된다. 연락을 받은 수령인은 48시간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48시간 이후 수령 시에는 24시간마다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광산구, 100억 규모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광주 광산구가 8일 구청에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과 ‘광산구 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매출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혁신 선도형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부 근무 시간제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아래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승조건설 1사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급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월급
1.1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